

## 현종민 교수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학우 여러분!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지요.

저희는 학교에서 식당 가격 인상 문제, 학생회관 신축 문제 등 학원자주화 투쟁과 또한 6·15 남북공동선언 합의 이후 한껏 높아진 7천만 겨레의 염원 조국통일투쟁을 하며 날씨만큼이나 뜨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방학을 시작할 무렵 저희는 황당하고도 분노스러운 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학교(수원) 부총장인 현종민 교수의 성추행 사건이었습니다. 현종민은 수원학교의 자신의 연구실로 한 조교를 불러 성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성추행을 당한 조교는 이 일로 인하여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서 김대중정부 산하 여성특별위원회로 신고를 하였고, 수원학교에서 이를 알게 되어 저희에게 알려주었습니다(현재 수원학교는 총여학생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성추행은 범죄 중에서도 가장 추잡한 범죄입니다. 더군다나 도덕성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교육자가 어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 이외에도 경희대에 있다가 97년 손종국에 의해 우리학교로 스카우트 된 현종민의 행적은 화려합니다. 영입된 후 급격히 승진해 부총장 자리에 올랐고 97~98년 대학종합발전계획(마스터플랜)을 구상한다며 우리들의 등록금을 이용해 미국 SIGAL과의 사업 추진 중 계획 무산으로 전체 마스터플랜을 무산시키고 학교예산의 수십억원을 날린 장본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학교 실정에 맞지도 않는 학부제를 시행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행정학과 교수임에도 98년 신설된 다중매체영상학부의 교수로 학부장까지 지냈습니다. 현종민은 97년 우리학교로 오게 된 과정도 불투명하며 지금까지 손종국의 오른팔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현재 현종민은 손종국이 재취임하면서 부총장직과 교수직에 사퇴서를 낸 상황입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하겠다라는 일언반구의 말 한마디도 없는 상태입니다. 학교측에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내와야 할 것이고, 민족경기 총여학생회는 학교측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현종민은 성추행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라.
2. 학교측은 교육자의 자질없는 현종민을 교수직까지 박탈하라.
3. 독단적이고 밀실적인 임용비리 척결하라.
4.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폭력 규제 학칙에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라.
5. 밀실행정, 부정비리 손종국 재취임 규탄한다.

학우여러분! 개강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시고 개강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하고 싶은 이야기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의 주소로 e-mail 보내주세요

kgwomen@hanmail.net

새천년 주체여성의 다부진 실천  
민족경기 17대 총여학생회

## 총여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계획을 세우기 위한 틀

### 결심하면 밀고 가자!!!

#### 상반기, 방중 평가

우리 선거공약, 전여대협 총노선 바탕으로

총여의 사업과 투쟁 평가, 부서별 평가(전여대협, 서여대협, 우리 총여에서 했던 사업을 떠올리며)

교양학습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던가?

조직적 성과와 한계

집행부의 조직사상적 단결, 1학여대협 평가

상반기 정세의 요구대로 투쟁하였는가?

우리 학우들의 의식지형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었나?

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투쟁하였나?

방중평가를 잘해봅시다.

7,8월 정세는 내가 이야기 하는 것으로 하고, 총화서를 작성해 옵시다.

#### 하반기 계획

하반기 정세 토론

하반기 정세와 상반기 평가의 성과, 한계 속에서

하반기의 핵심고리가 무엇인가?

사상사업, 조직사업, 대중사업으로 나뉘서 계획.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잘 해 봅시다.

새천년 주체여성의 다부진 실천  
17대 민족경기 총여학생회

## 민족경기 총여학생회 9,10월 사업계획

결심하면 밀고 가자!!

사상 사업

자주적 여학생 운동론 확립

주체의 사상단련, 조직 강화

우리는 왜 여학생(여성)운동을 해야하는가?

현시기 여학생(여성)운동은 어떠한가 하는가(통일과 여성)

조직사업

주체 발굴

하반기 주체와 내년 주체 발굴

사업을 펼쳐내는 속에서

총여두리로 묶여있는 사람도 그냥 두리에 있는 것이 아닌 교양사업과 실천투쟁을 통해 실제 여학운동에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김행부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계획 8월까지 내오고, 9·10월은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지도사업

회의 꼭 정례화

담화 사업

1학여대협(골간 체계 강화)

교양사업: 자주적 여학생 운동론, 반미, 통일, 학자

실천투쟁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의조직화

(이 단위들을 내년 운영위 세울 수 있도록 지도)

대중 사업과 투쟁

1000여학우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담을 수 있게

성폭력 규제 학칙제정에 대한 자료수집과 학우들의 의견수렴

여성 문화제 (문화제 실천단 고민중)

우리 차 마시기 운동(학우들과 만남의 공간 넓히기 위해

반미·조국통일 선전 의식화...)

수요집회(남·북·해외 3자 연대로 위안부 문제 완전 해결)-주체 발굴

금요집회 (반미 조국통일 투쟁을 대중화하는 유력한 방도)